

CHOSUN UNIVERSITY

1946년 해방 직후 민족국가 수립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7만 2천여 명의 사·도민의 성금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유일의 민립(民立)대학

개황

[기준: 2024. 07.]

구분	대학	대학원	합계
입학정원(명)	4,343	898	5,241
졸업생수(명)	198,019	28,345	226,364
모집단위(개)	14개 단과대학 / 84개 학부(과)	8개 (특수)대학원	22

※ 1만여 명 의사, 6천여 명 교사, 5천여 명 군 장교(전국 최다), 장군 10명, 200여 명 법조인 양성

대학 브랜드

-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 2024년 호남사립대 3년 연속 1위
- 네이처인덱스, 2024년 호남사립대 1위
- 한국기업평판연구소, 2024년 6월 대학브랜드 평판 전국 18위, 호남사립대 1위

주요 국책 사업

1 교육

- 대학혁신지원사업(237억)
- 지방대학활성화사업(70억)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141억)

2 문화/산학협력

- 지자체-대학 지역혁신사업(160억)
- 아시아 e스포츠산업 조성(162억)
- 자연재난 국가유산 보호방안 연구(10억)

3 바이오

- 펩타이드 첨단신약 핵심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440억)
- 퇴행성 뇌질환 중심 시니어 헬스케어 임상실증 시플랫폼 개발 사업(102억)

4 AI/SW/공학

- 2024 SW중심대학(132억)
-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사업(67억)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85.5억)
- 신기술 적용 안테나 기술개발 연구(25억)

발전 기금

- 대학알리미 공시기준 발전기금 모금액 호남사립대 1위
- 모금총액: 약 778억 원(84,705건)

교류 현황

- 국내: 기관 1,676개, 대학 423개
- 국외: 33개국 209개 대학

신입생 충원율



충원율

99.20%



충원율

99.34%



충원율

99.66%



조선대, '세계 최초' 치매 예방 의료시 개발 착수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 정부 사업 선정

퇴행성 뇌질환 중심 시니어 헬스케어 임상실증 개발 내년부터 총사업비 118억원... 이시안차세대단 협력

조선대학교가 세계 최초로 노인성 치매 예방을 조기에 예측하고 예방을 예방하는 의료시 개발에 나선다. 조선대는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디지탈헬스케어 의료시사업에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 연구단이 '퇴행성 뇌질환 중심 시니어 헬스케어 임상실증 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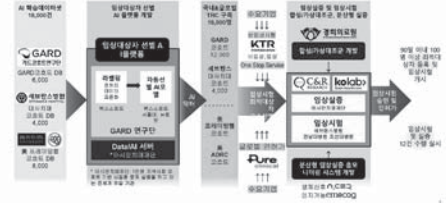
연구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118억원이다.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지난 11년간 이시안차세대단과 함께 광주시 인문대상을 무료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이상 이상 징후의 의료진사를 발굴하고, 2009년 이상의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해 치매 예방 예측기 개발을 위한 의료시 개발에 앞장서 왔다. 지금까지 치매 조기 예측을 위한 정밀 의료진사에 5897명 이상(내년 3897명)의 연구진사가 150여억 원의 20여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생체 의식 데이터는 세계 최대 규모에 이른다.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세계 최대 치매 예방 의료시 개발을 위한 치매 예방 예측기 개발을 위한 시나리오를 세계 최초로 개발에 착수했다.

먼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은 노인성 뇌질환 실증연구단으로 세계 최초 예방 조진단 이시안차세대단에 보유한 자회사인 치매 예방 예측기 개발을 위한 연구단을 설립했다. 이 연구단은 세계 최초로 치매 예방 예측기 개발을 위한 연구단을 설립했다. 이 연구단은 세계 최초로 치매 예방 예측기 개발을 위한 연구단을 설립했다. 이 연구단은 세계 최초로 치매 예방 예측기 개발에 착수했다.



조선대학교 전경

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가드 컨소시엄 추진 전략



조선대 광주치매코호트연구단이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기술개발 디지탈 헬스케어 R&D연구개발사업에 선정돼 '퇴행성 뇌 질환 중심 시니어 헬스케어 임상실증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은 시니어 헬스케어 임상실증 개발 사업에 선정됐다. 연구단은 치매 예방 예측기 개발을 위한 연구단을 설립했다. 이 연구단은 세계 최초로 치매 예방 예측기 개발에 착수했다.

전남매일 '외국인 250만 시대' 지역 대학, 유학생 조기 정착 돕는다

동강대 '다문화 인재양성' 선포 조선대·동신대, 한국어·문화체험 전담대, 일본서 국제 교류 논의

광주·전남지역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전개하며 글로벌 인재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K-컬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 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에 안정적인 유학생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언론·민간에 힘을 쏟고 있다. 2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동강대학교는 지난 29일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제1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동강대학교는 지난 29일 본관 5층 나이팅게일홀에서 '글로벌 비전 선포식'과 '제1회 K-컬처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동신대학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유학생 문화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강대는 이날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포 대안'의 비전을 선포, 'K-컬처 페스티벌'을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각종 다문화 이벤트를 마련하는 등 다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만들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50만 외국인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족과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지역사회의 상생을 통해 글로벌 민심을 실현하고 지역의 자부심이 되는 대학, 글로벌 다문화 인재양성 선도 대학의 면모를 드러내야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남대학교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국유학위원회에 참석해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홍보와 현장 입시상담을 진행했다.

동강대가 5대 전략으로 공정한 'GREAT'은 △(Global: 세계성+지역성) 광주의 모습을 세계에 담은 글로벌 대학 △(Respect: 문화 존중) 다문화 이해를 위한 문화 대학 △(Exemplary: 모범) 공존과 상생의 교육혁신 모범 대학 △(Acceptance: 수용) 다양성의 수용과 포용의 긍정 대학 △(Together: 함께) 품격 높은 문화 가치를 실현하는 다문화 대학의 뜻을 담았다. 이만숙 동강대 총장은 "비전 선포식과 K-컬처 페스티벌을 발판으로 동강대가 추구해 온 교육의 가치와 비전에 글로벌 다문화라는 변화의 혁신을 담아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조선대학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 나섰고 있다. 단기 한국어 교육과 문화 체험 등으로 구성된 'CSU 썸머스쿨'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CSU 썸머스쿨' 프로그램은 몽골 국제 학교 재학생 211명이 참여할 정도로 한국 유학에 대한 높은 관심이 돋보였다.

김준성 조선대 총장은 "이번 CSU 썸머스쿨은 조선대와 광주·전남의 우수한 교육인프라와 문화를 소개하며, 예비 유학생들에게 한국 유학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남대학교는 최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한국유학위원회에 참석해 일본 유학생 유치에 나섰다. 박민희 홍보부서에서 일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홍보와 현장 입시상담을 가졌다.

또, 동광에 있는 국사관대학교 치과사과대학, 현대대에 있는 동북아대학을 차례로 방문

공과대학 김태규 교수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선정

항공·우주 분야 5년간 총 85.5억 지원



우리의 역량

- 호남최초 인공위성 2018 화사**
 - 1U (10cm×10cm×10cm) 크브위성
 - 학부생 인원으로 위성 설계/제작/시험 수행
 - 일부: 국내 유일 우주부품의 제조 및 발사
 - MEMS 추력기, 가변 형상 리드미터
 - 정밀형 태양전지 시스템
 - 우주적 구조물링지, 정밀형 히터로퍼
 - 발사장소: 인도
- 마이크로중력 관측위성 2021 화사**
 - 3U (40cm×10cm×34cm) 초소형 위성 시스템 개발
 - 지상국과 위성 간 시간 동기화 성공
 - 일부: 마이크로 중력 과학임무 수행
 - 우주적 구조물링지, 정밀형 히터로퍼
 - 국내 유일 우주부품 제조 연구
 - 국내 유일 우주부품 제조 연구
 - 국내 유일 우주부품 제조 연구
 - 발사장소: 카차르스탄
- 누리호 위성 탑재 2022 화사**
 - 6U 초소형 위성, 조선대 주축 과학 위성 임무
 - 누리호 상용위성임무에 탑재 및 발사
 - 일부: 국내 최초 전자방위/중성자
 - 정밀형 태양전지 시스템
 - 우주적 구조물링지, 정밀형 히터로퍼
 - 발사장소: 대한민국(고창)
- 우주 광통신 검증 위성 2025 미래비행**
 - 3U 초소형 위성, 조선대 주축 과학 위성 임무
 - 일부: 대국민 우주기술 홍보용 참여형 교육임무
 - 우주 광통신 기술 임무
 - 상용형 우주 통신 교육 임무
 - 우주 광통신 교육 임무
 - 발사장소: 대한민국(고창/여성)

이달의
인물

김은경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조선대학교지회장

폐지 모아 장학금 전달...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조선대 청소노동자, 발전기금 2천만 원 전달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기탁(총 6천만 원)

Q. 기부를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A. 저희가 비록 용역업체 소속이나 조선대 구성원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대학이나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장학금 기부를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조합원들이 흔쾌히 동의해 주셔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Q. 처음 기부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요?

A. 입사한 후 폐지나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생각이 너무나 멋있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시험기간 이른 아침에 청소를 하러 강의실에 들어가면 밤새 공부하다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는 학생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잔한 마음에 더 잘 수 있도록 조용히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청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Q. 혹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A. 2021년 당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떡 선물을 들고 찾아와서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다짐하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때 학생들의 취업 소식을 들으면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올해도 학생들이 좋은 뜻을 펼칠 수 있게 도움을 준 것 같아 기쁩니다.

Q. 혹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A. 학생들을 보면 꼭 자식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열심히 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매사에 열심히 해서 후회하지 않는 대학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